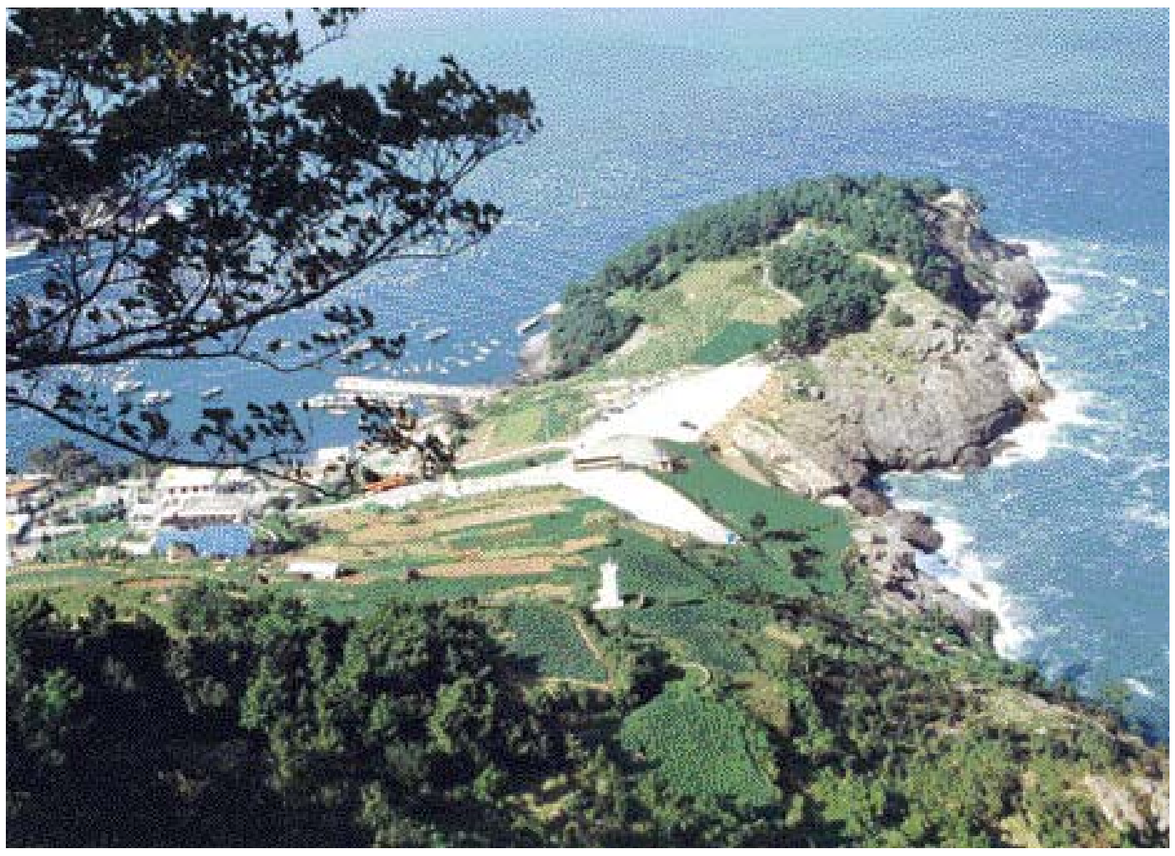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사색의 계절이기도 하다. 울긋불긋하게 물든 오색 단풍과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그리고 파란 색으로 가라앉은 바다를 바라보며 떠나는 드라이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슴 뭉클한 깨달음을 안겨주며, 때로는 잊혀진 과거의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소개한 가을드라이브 코스 2선을 소개한다.

40 가을 드라이브 코스 2選

길 따라 마음도 훌쩍~ 자! 달려보자



여수 돌산 해안도로 바닷내음 물씬…마음은 벌써 향일암에…

멈추어도 좋고, 달려도 좋다. 곳곳에 볼거리 풍성한 관광지와 함께한 드라이브코스라 그렇다. 돌산도는 8개의 큰 산이 연결돼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이다. 돌산대교를 기점으로 국도 17호선 2차선 해안도로를 따라 방죽포해수욕장을 끼고 도는 해안일주 도로는 국내 최고의 드라이브코스로 꼽힌다.

드라이브 출발지점은 돌산대교.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읍 우두리간 450m 구간을 연결하는 사장교로, 바닷내음 물씬 풍기는 낮도 좋지만, 아름다운 여수항을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야경도 낮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다. 밤이면 오색찬란하게 빛나는 여수대교도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다.

돌산대교에서 17호 국도를 따라 향일암을 향해 달리다 보면 도중에 무술해변이 나온다. 무술목은 몽돌밭 해안으로, 해변을 감싸고 있는 송림숲이 아름답다.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가을 해변가를 조용히 거니는 것도 바다여행의 즐거움이다. 계속해서 돌산도의 남쪽을 향해 내려가면 방죽포 해수욕장에 닿게 된다.

방죽포 해수욕장 은 항아리 모양의 해수욕장으로, 수령이 200여 년 이상 된 송림숲과 백사장이 아름다운 여름철 피서지다. 방죽포에서 임포까지의 해안길은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마음껏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환상의 코스다. 가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바다내음도 맡으며 한 장의 스냅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 적당한 곳이 군데군데 기다리고 있다.

돌산도 드라이브의 종점인 향일암은 일출이 장관인 곳으로 유명하다. 항상 신년 첫날에는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방죽포에서 향일암까지의 도로가 온통 자동차로 뒤덮일 정도다.

전국 4대 관음기도처 중의 한 곳으로, 아열대식물과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수평선 위 떠오르는 일출이 천하일경이다. 이어서 돌산읍 군내를 거쳐 금천으로 가는 서부 해안도로는 굴양식장과 풍요로운 어촌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드라이브 정보

돌산대교에서 17번국도를 따라 → 무술해변이 나온다. 무술목은 몽돌밭 해변으로 송림숲이 아름답다. → 이어 달리다 보면 방죽포해수욕장에 도착 → 향일암. 총길이는 46km 거리로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구례 노고단 지리산 안고 달리는 여기가 지상 낙원

전주~남원~구례~노고단~성삼재~하동~악양~화개. 그리고 이어진 섬진강을 따라 지리산을 바라보며 구례읍으로 향하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지리산 남서자락을 휘감은 순환도로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너 드라이버에게 이 길은 꿈의 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만큼 달리기에도 좋고, 달리는 동안 그림도 좋은 곳이다.

특히 구례구역 부근에서 맛보는 섬진강 쏘가리탕이나 민물참게 맛은 일품이다. 남원에서 구례로 바로 가는 경우 광한루 주차장에서 다리 건너 터널 방향으로 운행한다. 밤재터널을 지나가는 이 길은 약 30km정도. 길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서 짙은 구름 속을 헤치고 올라가면 노고단과 성삼재가 위용을 자랑한다. 굽이굽이 돌아 올라갈 때마다 풀꽃이 만발한 진풍경이 펼쳐진다. 산 줄기를 잘라 도로를 만들어 보기에 다소 흉하지만 드라이브코스로 이보다 좋은 곳을 찾기란 어렵다. 경사가 심해 운전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빠져나와 임실~남원시내를 거쳐 구례방면 19번 국도를 탄다. 하동에서 화엄사에 이르는 19번 국도변 약 35㎞는 가로수로 벚나무가 심어져 매년 4월 벚꽃이 만개할 때면 상춘객이 구름처럼 몰리는 드라이브 코스로, 인근에는 섬진강매화마을과 지리산국립공원, 쌍계사 등 많은 관광지가 포진해 있다.

이 밖에 뱀사골에서 지리산 횡단도로를 따라 성삼재를 거쳐 계속 좌회전해 화엄사까지 갈 수도 있다.

해발 1000미터 높이까지 뚫린 지리산의 중턱 노고단을 드라이브하면서 지리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구례 화엄사 입구는 지리산 다른 어느 곳보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많다.

드라이브 정보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해 전주-남원-구례 방면으로 가면 된다. 남원에서 구례로 가는 길은 남원 - 밤재 삼동마을-순천간 직통 국도를 타고 가다가 구례나들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